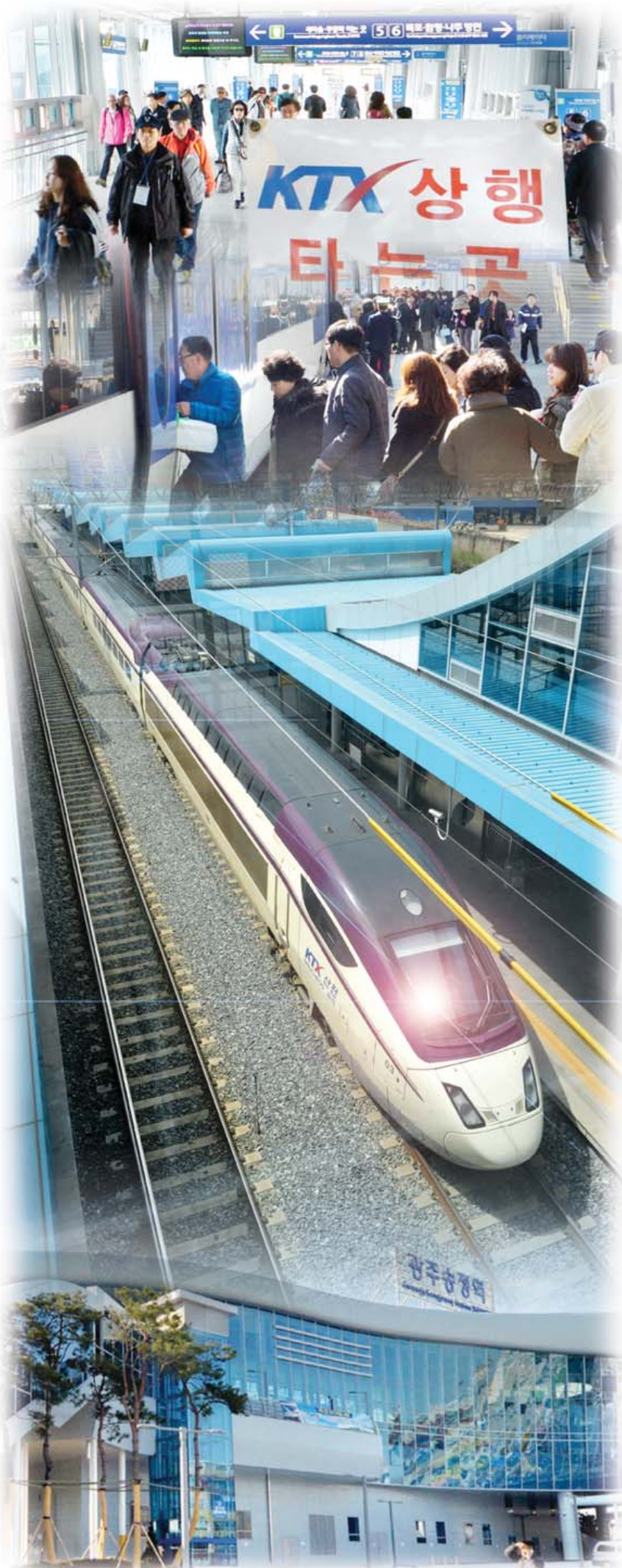


차별·소외의 한 털고 지역발전도 '꿈의 속도로'



교통혁명 KTX시대

◇송정역 하루 이용객 평일 1만3천명 호남선KTX 개통 이후 1년간 주말로 접어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평균 승객 수가 각각 7천718명과 8천285명으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승객보다 많았다.

개통 이전부터 우려됐던 '빨대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통 직후인 지난해 5월 광주송정역에서 서울로 향한 2천명 중 의료기관 이용 목적은 3.6%, 문화활동과 쇼핑 목적은 각각 1.9%와 0.4%였다. 하지만 개통 1년 후 다시 조사한 결과 병원 진료 1.0%, 기타 2.0%로 나타나 우려했던 지역 부의 역의 유출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12월9일 수서발 고속철(SRT)이 개통됨에 따라 광주송정역을 거치는 고속열차가 하루 86편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5년 4월2일 개통된 용산발KTX는 기존 48편(서울역 14편)에서 2편 감소하지만 SRT가 왕복 40차례 운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 18편은 목포역까지 운행된다.

호남선KTX에 SRT까지 운행을 시작하면서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종전보다 평일 6천명, 주말 7천명 가량 증가했다.

용산과 송정을 오가는 열차 이용요금도 4만5천800원(서울-광주송정 4만6천100원)인데 반해 수서와 송정 구간은 4만700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이용 요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었다.

SRT 개통 이전 광주송정역 하루 이

용객이 평일 1만3천명, 주말 1만6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말 최대 2만3천명이 광주송정역을 이용하고 있다.

◇송정역 상권 새 시대 열어 호남선KTX 개통은 사양위에 몰렸던 광주송정역 상권에도 새 시대를 열었다.

광주송정역 주변은 개발재해와 함께 1913송정역시장의 성공이 겹치면서 '황금상권'으로 재탄생했다. 개통 이후 이용객이 300% 이상 증가하면서 각종 개발계획이 이어지는데 광주송정역 일대 생활 인프라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영화관, 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K

지난해 4월 호남선KTX 개통을 기점으로 광주송정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문(關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케 했고 지역 교통지형에도 혁신을 일으켰다. 다만 KTX 호남선 개통과 함께 광주의 관문이 광주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변화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했다. /편지자註

시켰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해 상권과 지역 경제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폭등이 부를 수 있는 제2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협약을 통해 건물주들은 임대기간 보장과 적정 수준 임대료 유지, 청년상인들은 상권 성장에 대한 노력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광산구는 바닥정비와 전선 및 통신 중화화 사업을 마친데 이어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만나질 생활권 가능·지역 교통지형 대변화 '빨대효과' 미미...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급선무

TX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함께 황룡강변 대단위 주거타운 조성도 계획됐다.

이곳 황금상권의 중심에는 1913송정역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4월18일 개장한 1913송정역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이 같은 호황은 호남선KTX 개통 등 호재를 바탕으로 광산구와 건물주, 상인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산구청은 1913송정역시장 개장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26일 1913송정역시장 건물주와 청년상인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협약을 성사

25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건물주와 상인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상인교육관과 고객지원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광주역·송정역간 명암 엇갈려 호남선KTX는 기대와 편의뿐만 아니라 광주에 큰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발간한 2015철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광주역 이용객(승·하차 포함) 수는 약 76만명, 광주송정역은 이용객수는 약 400만명이다.

2014년 광주송정역 이용객 수가 약 180만명, 광주역이 약 170만명인 것과 비

교할 때 호남선KTX 개통 이후 송정역은 2배 이상 이용객 수가 늘었고 광주역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15년 광주송정역 승차객 중 고속철도 KTX를 이용한 이들은 약 170만명, 새마을은 약 5만명, 무궁화는 약 25만명으로 대부분이 고속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선KTX로 인해 광주역과 광주송정역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광주송정역은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이곳은 호남선KTX 개통 1년8개월여가 넘도록 편의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SRT가 개통되면서 늘어난 승객은 주변지역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주차장이 비좁다보니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차량이 길게 줄지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이 광주송정역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최 차관은 비좁은 내부 공간과 주차장 문제 해결 위해 신속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완공을 지시했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1천800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복합환승센터는 최대한 서두른다고 해도 2019년 말까지 완공될 전망이다.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 확보 실패 등 호남선KTX 개통 이전부터 잠깐된 예상은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대용기자 ydy2132@kdaily.com

기고



윤 경 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광주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속도내야

현재 우리가 말하는 고속철도하면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는 일본에 의해 1964년 개통

된데 이어 그 후 프랑스와 독일이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은 2004년 4월1일에 개통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개통 초기 호남고속철도는 대전까지만 고속철도전용선을 이용하고 서대전 아래로는 기존의 호남선을 이용하면서 반쪽짜리 고속열차라는 불만이 많았다. 그 후 11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4월1일에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인 오송-광주송정(182.3km)구간이 개통식을 갖는데 이어 다음 날부터는 전 구간을 시속 300km로 운행할 수 있는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하

면서 서울-광주는 만나질 생활권이 접어들게 됐다.

여기에서 2016년 12월9일에는 (주)SRT(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이 운영하는 수서-부산, 수서-목포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수도권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강남지역으로의 진출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 KTX보다 평균 10% 가량 저렴한 운임체계로 출발하면서 철도역사 117년 만에 공기업인 코레일과 회사형태인(주)SRT가 철도영업을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광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이 광주송정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재 광주송정역에는 KTX 1일 46편, SRT 1일 40편 등 총 86편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같은 고속철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지역은 이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관광, 음식, 숙박, 운수업종의 특성화를 꾀할 수 있다. 다만 광주송정역 이용객 증가로 인해 미흡한 부분도 많다. 코레일의 KTX 개통 당시부터 제기된 주차장 부족과 좁고 편의시설이 미흡한 대합실은 SRT 개통으로 더욱 혼잡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십니까?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가 해결해드립니다.

제 4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우 모집

광주·전남 각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4기 원우모집에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4기를 맞는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그동안 경영관련 고품격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전국적으로 명망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CEO와 리더들이 보다 큰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

창조·혁신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 / CEO와 리더들의 특별한 만남의 장, 인적네트워크 확장 각 분야의 성공 인물 강사진 포진, 융·복합 마인드 함양 / 우리 발전 방향은 우리 스스로! 에듀셀빙 워크숍 창조기획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문가 HOT-LINE

- 모집인원** 100명내외
- 교육기간** 2017년 2월 21일(화) 개강 ~ 12월 중강 (1년 과정, 월2회 강의)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가 등 전문가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6시부터 호텔식사 제공)
-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 모집기간** 2월 11일까지 접수
-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다운로드 후 팩스 및 이메일 전송 FAX. 062)650-2019 / e-mail: mooncm5@naver.com
- 문의전화** 광주매일신문 기획실 사업국 062)650-2007, 2079 / 010-2619-5585

